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산업별 무역수지 동향과 시사점

정형곤 동북아경제협력팀 연구위원 (hgjeong@kiep.go.kr, Tel: 3460-1127)

방호경 동북아경제협력팀 전문연구원 (bassgu@kiep.go.kr, Tel: 3460-1126)

1. 서론
2.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산업별 무역수지 특징
3.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품목별·생산공정별 무역수지 특징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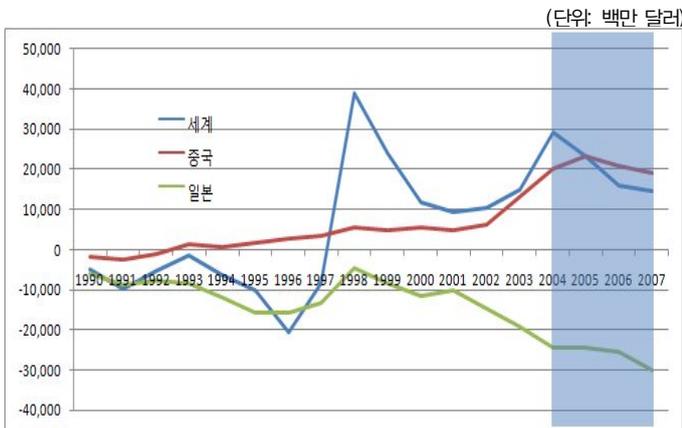
- ▶ 최근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대중 무역수지 흑자 감소는 교역비중이 높은 중간재의 교역에서 일본과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중국과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추격(catch-up)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 산업별 대중 무역수지에서는 화학분야의 무역흑자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전기전자 분야는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철강 및 금속산업, 섬유 및 가죽산업, 기타제조업은 적자산업으로 바뀌었음. 또한 대일 무역수지에서는 기계, 철강금속, 화학 등에서의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 화학분야처럼 특정 품목이 견인하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중국의 빠른 수입대체와 석유화학산업의 자급률 개선, 원가경쟁력을 보유한 중동의 수출여력 증대 등의 요인과 맞물려 수출환경이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무역흑자 품목수가 줄어들고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대중 무역수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의 경우 세계경기의 둔화로 다소 개선될 여지도 있으나 무역적자가 다양한 산업과 품목에 걸쳐있어 현저히 완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및 대일 무역적자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수직적 분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일본과는 수평적 분업체제로 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 하이테크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함.
- ▶ 하이테크 부품·소재산업 육성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데, 특히 1) 관련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와 2) 우리 기업의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 아울러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1)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통한 대일본 시장접근 개선 노력과 2) 한국과 일본기업 간의 기술적 제휴 활성화가 필요함.
- ▶ 기술주도형 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완제품 간 수직적 연결구조를 갖도록 국내적으로 직간접 산업을 묶는 산업클러스터화를 추진하고 국외적으로는 유명 클러스트와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 한편 환경산업 등 향후 시장 잠재성이 큰 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 선점을 통해 한국의 대외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1. 서론

■ 최근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은 줄곧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중국과 일본임.

-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 이후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 232.7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2007년에는 189.6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반면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1960년대부터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 바 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악화되어 2007년에는 298.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1. 한국의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베이스

■ 한국의 대일 및 대중 무역수지 변화는 그동안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큼.

- 한국의 대일 및 대중교역에서 교역비중이 높은 중간재의 분업구조를 보면, 일본과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더욱 심화된 반면,
- 중국과는 기술격차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 기술적 추격(catch-up)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인 중국과 최대 무역적자국인 일본을 대상으로 산업 및 생산공정별 차원에서 무역수지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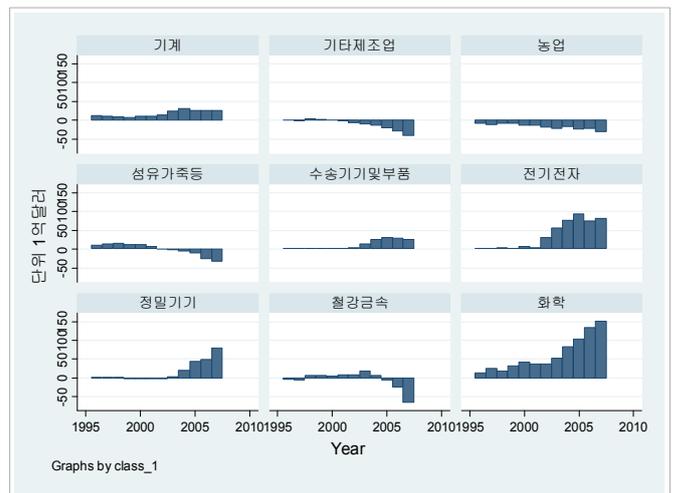
2.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산업별 무역수지 특징

가. 대중국 산업별 무역수지

■ 산업별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1996~1999년 사이 농업을 제외한 모든 분석대상 산업에서 무역흑자를 보였으나 2000~2007년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적자로 바뀌었음.¹⁾

- 2007년 현재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가 가장 큰 산업은 화학(150.4억 달러)으로 2002년 이후 무역흑자폭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음.
- 전기전자는 화학 다음으로 높은 무역흑자(80.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2005년에 비해 감소한 금액임.
- 반면 철강금속은 2004년까지 무역흑자를 시현했으나 2007년 현재 산업별 기준으로 가장 큰 무역적자 산업으로 변모하였음.
- 기타 제조업 및 섬유가죽산업도 2002년부터 적자로 바뀐 후 적자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1. 한국의 대중국 주요 산업별 무역수지(1996~2007)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 <표 1>은 한국 및 중국의 산업별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0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산업별 관세율은 한국에 비해 관세 인하폭이 큼.

1) 산업분류기준은 <부표 3> 참조

- 특히 섬유 및 가죽산업과 전기전자 등의 산업에서 관세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 반면 한국의 산업별 관세율은 농수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하되어 왔으나 인하폭은 크지 않음.

표 1. 한국 및 중국의 산업별 관세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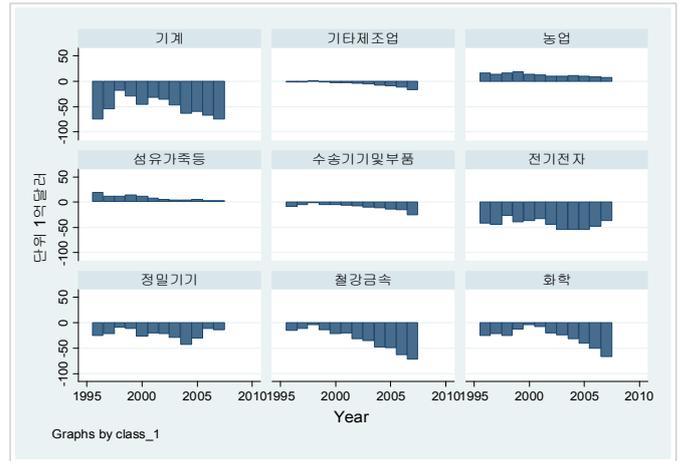
국가	산업	2000년	2007년
중국	기계	13.0	8.1
	기타제조업	13.2	8.5
	농업	27.3	15.6
	섬유가죽 등	21.5	12.1
	수송기기 및 부품	17.2	9.3
	전기전자	17.3	9.1
	정밀기기	16.4	11.3
	철강금속	10.5	7.6
	화학	11.9	7.3
한국	기계	7.4	6.5
	기타제조업	5.5	4.3
	농업	48.8	49.3
	섬유가죽 등	9.2	9.1
	수송기기 및 부품	5.0	4.6
	전기전자	6.0	5.9
	정밀기기	7.8	7.1
	철강금속	6.7	4.7
	화학	7.6	7.0

자료: WTO, TRAINS를 이용하여 계산

나. 대일본 산업별 무역수지

- 한국은 일본에 대해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현재 기계산업의 무역적자 규모는 74.4억 달러로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 1996~1998년 동안 적자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으나 이후 다시 악화되어 왔음.
- 철강 및 금속산업의 적자규모는 1998년 이후 더욱 악화되어 왔고, 화학산업도 2000년 이후부터 빠르게 적자규모가 확대되었음.
- 기타 제조업도 2002년 이후 적자규모가 완만하게 늘어났음.
- 반면 무역흑자 산업인 섬유 및 가죽과 농업은 분석대상기간 동안 흑자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왔음.

그림 2. 한국의 대일본 주요 산업별 무역수지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 <표 2>는 일본의 산업별 관세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농수산업과 섬유 및 가죽산업을 제외하고는 관세율 수준이 상당히 낮았음.

- 기계, 수송기기 및 전자산업의 경우 관세장벽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표 2. 일본의 산업별 관세율 변화

(단위: %)

산업	2000년	2007년
기계	0.0	0.0
기타제조업	1.2	1.1
농업	14.4	7.3
섬유가죽 등	7.7	6.2
수송기기 및 부품	0.2	0.2
전기전자	0.1	0.1
정밀기기	0.2	0.2
철강금속	1.8	1.4
화학	2.3	2.3

자료: WTO, TRAINS를 이용하여 계산

- 종합하면,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철강금속, 섬유가죽, 기타 제조업 등의 산업이 2000년을 기점으로 흑자에서 적자구조로 바뀌었고 다른 품목의 흑자폭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 철강금속, 화학 등의 산업에서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기존의 무역흑자 산업인 농수산업, 섬유 및 가죽산업의 흑자폭도 최근 들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품목별·생산 공정별 무역수지 특징

가.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품목 특징

- HS 6단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에서 상위 20대 품목이 차지하는 금액비중은 58.4%로 높은 점유를 보임.²⁾
-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서 1~3위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품목은 액정 디바이스 및 기타 광학기기(HS 9013.80), 석유와 역청유(HS 2710.19), 휴대폰 부품(HS 8517.70)으로 조사됨.
- 이 중 액정 디바이스의 2007년 무역흑자규모는 2005년 대비 약 14배로 대폭 증가한 반면, 승용차의 기타부품(HS 8708.99)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임.

표 3. 2007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주요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	산업	수지	순위	HS	산업	수지
1	9013.80	정밀기기	4,749	11	2902.43	화학	931
2	2710.19	화학	4,041	12	8529.90	전기전자	878
3	8517.70	전기전자	3,898	13	3903.30	화학	779
4	8528.51	전기전자	2,699	14	3901.20	화학	720
5	8542.32	전기전자	2,656	15	8542.31	전기전자	672
6	9013.90	정밀기기	2,652	16	3902.10	화학	641
7	2917.36	화학	2,369	17	8507.80	전기전자	636
8	8708.99	수송기기 및 부품	1,602	18	8479.89	기계	570
9	2902.50	화학	1,448	19	2713.20	화학	565
10	8473.30	전기전자	1,240	20	8703.23	수송기기 및 부품	516

자료: UN COMTRADE Database

- <표 4>는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서 높은 무역흑자를 유지하는 상위 150개 품목의 산업 및 생산공정별 품목수를 나타내고 있음.

2) HS 6단위 기준으로 2007년 현재 한국의 대중국과의 교역이 이루어진 품목은 4,473개로 이 중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품목은 1,445개로 분석되었음.

표 4.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상위 150개 품목의 산업 및 생산공정별 품목수

산업	중간재		최종재		1차	합계
	부품	반내구재	자본재	소비재		
농업	0	0	0	2	0	2
섬유가죽	0	11	0	2	0	13
기타제조업	0	1	0	0	0	1
철강금속	1	20	0	0	2	23
기계	2	0	13	0	0	15
수송기기 및 부품	3	0	2	3	0	8
전기전자	17	3	3	2	0	25
정밀기기	2	2	3	0	0	7
화학	0	54	0	1	1	56
합계	25	91	21	10	3	150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품목은 생산공정별로 분류할 경우 대부분이 중간재에 속하고, 산업별로는 화학(석유화학)으로 조사됨.
- 상위 150개 품목 중 중간재로 분류된 품목이 77.3%에 해당되며, 중간재를 보다 세분화할 경우 반내구재 및 부품이 각각 91개 및 25개로 조사됨.
- 반내구재와 부품에서 각각 높은 무역흑자를 기록한 산업은 화학(석유화학)과 전기전자로 분석되었음.
- 자본재는 기계산업이 13개로 품목은 금속처리용 혼합기(HS 8479.89), 굴삭기(HS 8429.52), 반도체 디바이스(HS 8486.20) 등임.
- 소비재에서 상위 150개 품목 이내에 속한 품목 중 농수산업이 2개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정제설탕(HS 1701.99), 오징어(HS 0307.49)임.
- 이처럼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높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품목은 대부분이 중간재로 분류되는 품목이나 최근 들어 무역흑자 품목의 개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³⁾
- 총 무역흑자 품목수는 2005년 1,730개, 2006년 1,576개, 2007년 1,422개로 감소함.

3) <부표 2> 참조. 2002~2006년에 사용되는 HS 상품분류방식은 HS 2002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2007년 들어 HS 품목분류가 일부 변경(HS 2007기준)되었음. 이에 본고에서는 2007년과 이전연도를 비교하기 위해 HS 2002 분류기준에 기초한 2007년 무역통계를 사용하였음.

■ 2007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품목은 총 1,422개이나 이는 2006년(1,576개)에 비해 154개가 감소한 수치임.⁴⁾

- 특히 가장 많이 감소한 품목은 중간재(102개)로, 이 중 반내구재 75개, 부품 27개로 줄어들었음.⁵⁾

- 최종재의 경우 자본재 및 소비재가 각각 46개 및 14개가 감소하였으나 원재료(primary)는 오히려 8개가 늘어났음.⁶⁾

■ 산업기준으로 보면, 기계 및 기타제조업이 타 산업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 기계와 기타제조업은 각각 44개 및 31개로 감소하였으며, 전기전자산업은 25개가 줄어들었음.

◦ 2005년과 비교해 보면, 기계산업(75개), 철강 및 금속(59개), 섬유 및 가죽 산업(58개) 순으로 감소한 품목이 큼.

- 농수산업의 경우 무역흑자를 시현한 품목은 2006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17개)으로 조사되었음.

■ 이처럼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한 품목수는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으나 총 흑자를 시현한 품목의 흑자합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흑자를 기록한 품목의 총액은 2005년 473.7억 달러, 2006년 499.6억 달러, 2007년 585.0억 달러로 늘어났음.

■ 이는 최근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규모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함.

- <표 6>을 보면 2005~2007년 동안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분포가 상위 90%까지는 흑자규모가 유사하나, 95% 이상에서는 최근 연도로 올수록 이전 연도와 격차가 커짐을 알 수 있음.

4) 2007년 무역흑자 품목을 2005년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품목이 308개가 감소하였음(부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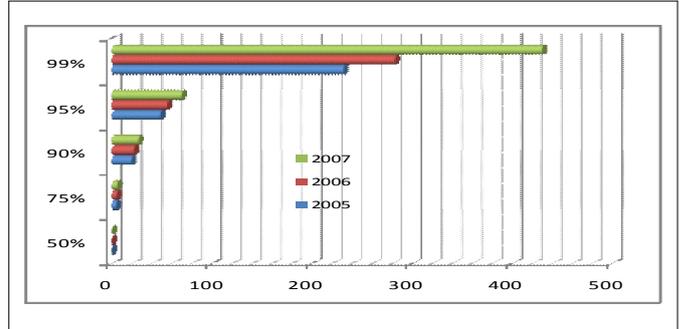
5) 2005년과 비교할 경우, 중간재는 198개가 감소(반내구재 154개, 부품 44개)하였음.

6) 2005년과 비교하면, 자본재 87개, 소비재 21개, 원재료(primary) 2개가 각각 감소하였음.

표 6.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액 분포

(단위: 백만 달러)

	50%	75%	90%	95%	99%
2005	0.7	4.5	20	49	231
2006	0.8	5.1	22	56	283
2007	0.9	5.7	26	70	430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 결국, 특정 품목이 견인하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이들 품목의 무역실적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아울러 해당 산업의 외부요인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전 세계적 경기침체, 고유가, 물가상승 등의 외부적 요인과 중국 내 빠른 수입대체는 향후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⁷⁾

- 일례로 2007년 현재 석유화학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서 높은 무역흑자를 시현하는 산업이나, 석유화학에 이용되는 주원료가 원유임을 고려할 때 최근 고유가는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최근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자급률 개선 및 원가 경쟁력⁸⁾을 보유한 중동의 수출여력 증대 등의 요인과 맞물려 수출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⁹⁾

- 중국이 한국의 제1대 무역수지 흑자국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의 변화는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임.

7) 중국 내 수입대체 변화는 다음 참조. 양평섭(2007),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 07-2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2006년 에틸렌 Cash Cost의 경우 중동은 톤당 198달러인 반면, 동북아는 톤당 687달러이고,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원가 차이에 따라 중동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9) 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중동지역의 관련 석유화학산업의 신증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있음.

나.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품목 특징

-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상위 2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35.1%로 조사되었음.¹⁰⁾

표 7. 2007년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주요 품목

순위	HS	산업	수지	순위	HS	산업	수지
1	3818.00	화학	-1,440	11	7208.38	철강금속	-668
2	8486.20	기계	-1,307	12	8901.90	수송기기 및 부품	-639
3	8542.31	전기전자	-1,224	13	7207.12	철강금속	-629
4	7208.51	철강금속	-1,178	14	8486.30	기계	-599
5	7204.49	철강금속	-1,102	15	9001.20	정밀기기	-590
6	3920.73	화학	-823	16	9030.82	정밀기기	-545
7	7208.39	철강금속	-757	17	2707.90	화학	-528
8	3824.90	화학	-748	18	7501.20	철강금속	-509
9	7004.90	기타제조업	-716	19	8486.40	기계	-459
10	8708.40	수송기기 및 부품	-715	20	7202.60	철강금속	-452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에서 상위 20대 품목 비중은 58.4%로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일본은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았음.

- 무역적자 규모가 큰 1~3위의 품목은 전자공업용 화합물(HS 3818.00),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HS 8486.2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HS 8542.31)로 조사됨.

- 상위 20대 품목의 경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역적자가 2006년에 비해 악화되었음.¹¹⁾

- <표 8>은 한국의 대일본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큰 상위 150개 품목을 생산공정별로 분류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무역적자 품목은 중간재와 자본재로 분류되는 품목이 많고, 산업으로는 석유화학, 기계 및 전기전자로 분류됨.

- 기계 및 전기전자는 생산공정별로 보면 대부분의 품목이 자본재 및 부품으로 각각 구성됨.

10) HS 6단위 기준으로 2007년 현재 한국과 일본간에 교역이 이루어진 품목은 4,307개로 이 중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품목은 2,959개로 조사되었음.

11) 일부품목은 철의 기타 평판압연제품(HS 7208.38), 편광재료제의 판과 콘택트렌즈(HS 9001.20) 등이 속함.

표 8.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상위 150개 품목의 생산공정별 품목수

산업	중간재		최종재		1차	합계
	부품	반내구재	자본재	소비재		
농업	0	0	0	1	0	1
섬유가죽 등	0	0	0	0	0	0
기타제조업	0	6	0	1	0	7
철강금속	0	25	0	0	2	27
기계	9	0	19	0	0	28
수송기기 및 부품	1	0	3	2	0	6
전기전자	20	1	7	0	0	28
정밀기기	3	4	6	0	0	13
화학	0	36	0	4	0	40
합계	33	72	35	8	2	150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품목은 2006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2005년과 비교할 경우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¹²⁾

- 총 무역적자 품목수는 2005년 2,911개, 2006년 3,010개, 2007년 2,957개로 나타남.

- <부표 4>는 2007년과 2006년에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품목수 격차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임.

- 2006년과 비교할 경우 2007년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품목수는 53개가 감소하였음.

- 생산공정별로 반내구재가 57개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소비재 및 원재료(primary)는 무역적자 품목이 늘어났음.¹³⁾

- 산업으로는 화학, 전기전자, 철강금속, 정밀기기 순으로 감소가 많았으나 기타제조업 및 농수산업에서는 적자품목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 결과, 한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기타제조업의 경우 무역적자가 과거보다 심화되었고, 농수산업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무역적자가 감소하고 있음(그림 2 참조).

- 반면, 철강 및 금속과 화학은 무역적자 품목수가 감소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2006

12) <부표 2> 참조

13) 2005년과 비교해 보면, 무역적자를 기록한 품목수의 확대는 대부분이 소비재에서 나타났고, 반면 무역적자가 감소한 품목은 중간재인 반내구재와 부품에서 나타났음.

년에 비해 오히려 심화되었는데, 이는 한국이 이들 산업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보다 심화된 것을 의미함.

- 종합하면, 최근 특정품목에서 대일 의존도가 보다 심화되는 품목이 있으나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다양한 산업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섬유 및 가죽산업을 중심으로 소비재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한 품목이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세계경기 둔화가 중국 및 미국 수요에 미칠 파장의 크기에 따라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향후 다소 개선될 여지도 있음.

-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품목이 다양한 산업 및 다양한 품목에 퍼져있어 적자가 현저히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축소는 한중 양국간의 분업구조 변화 속에서 산업별 경쟁력 이등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규모에서 화학분야 등 특정 품목의 의존도 증대는 해당 산업의 외부 요인에 따라 무역흑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 아울러, 향후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 내 수입대체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할 여지가 있으며 무역수지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경기 둔화로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향후 다소 개선될 여지도 있으나 현저히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특정 품목에서 대일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다양한 산업 및 다양한 품목에 골고루 퍼져 있음.

- 최근에는 섬유 및 가죽산업 등의 소비재에서도 무역적자 품목이 늘어나고 있음.

- 중간재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및 대일본 무역적자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품목군임을 고려할 때, 중국과는 수직적 분업체계를 유지하고 일본과는 수평적 분업체제로 가기 위한 하이테크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하이테크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 1) 관련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와 2) 우리 기업의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1) 대일본 시장접근 개선 노력과 2) 한국과 일본기업 간 기술적 제휴를 활성화시켜야 함.

- 향후 한·일 FTA 협상은 일본의 시장접근 장애요인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대비해 산·관·학 차원에서 각 산업별 시장접근 장애요인의 실제적 파악이 요구됨.

- 양국간 기술적 제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비즈니스 모델을 세부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최근 전 세계 기업들이 생산효율화 등을 위해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국내적으로는 직간접 산업을 묶는 산업클러스터화 작업과 국외적으로는 이를 해외 유명 클러스터와 연계하는 네트워킹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최근 생산공정의 일부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만으로는 산업 반의 기술경쟁력 제고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술주도형(technology push) 산업은 소재-부품-완제품 간의 수직적 연결구조를 갖는 특징을 보임.

- 한편 환경산업 등 향후 시장 잠재성이 큰 산업에 대한 기술 경쟁력 선점을 통해 이러한 품목이 한국의 대외수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2000~2006년 동안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총 수출과 환경재(environment goods)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환경재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여 왔음을 파악할 수 있음(표 10 참조).¹⁴⁾ KIEP

표 10. 한국의 대중 및 대일 환경재 교역 연평균 증가율(2000~2006년)

	수출			수입		
	중국	일본	미국	중국	일본	미국
환경재	31.49	25.67	14.11	45.75	8.68	5.99
총품목	24.72	4.42	2.30	24.89	8.50	2.42

주: APEC의 환경재 정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1. 2007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품목의 2005년 대비 차이

	중간재		최종재		1차	Total
	부품	반내구재	자본재	소비재		
기계	-15	0	-60	0	0	-75
기타제조업	-1	-35	-1	-6	2	-41
농업	0	-1	1	18	-3	15
섬유가죽 등	-2	-44	0	-12	0	-58
수송기기 및 부품	-6	0	-3	-2	-1	-12
전기전자	-17	-3	-7	-5	1	-31
정밀기기	-4	0	-13	-4	0	-21
철강금속	0	-48	-4	-6	-1	-59
화학	1	-23	0	-4	0	-26
Total	-44	-154	-87	-21	-2	-308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2. 2007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시현품목의 2006년 대비 격차
 (단위: 개수)

	중간재		최종재		1차	합계
	부품	반내구재	자본재	소비재		
기계	-7	0	-36	-1	0	-44
기타제조업	-1	-27	0	-4	1	-31
농업	0	6	1	9	1	17
섬유가죽 등	-1	-14	0	-3	2	-16
수송기기 및 부품	-6	0	3	-4	0	-7
전기전자	-12	-1	-5	-8	1	-25
정밀기기	-2	-1	-9	-1	0	-13
철강금속	0	-21	0	2	2	-17
화학	2	-17	0	-4	1	-18
합계	-27	-75	-46	-14	8	-154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14) 1996~2006년 동안 전세계 교역에서 환경재로 분류되는 품목의 점유비중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음.

부표 3. 2007년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품목의 2005년 대비 차이

산업	중간재		최종재		1차	합계
	부품	반내구재	자본재	소비재		
기계	-4	0	5	0	0	1
기타제조업	-2	-6	-2	23	4	17
농업	0	7	1	18	7	33
섬유가죽 등	-3	7	0	48	0	52
수송기기 및 부품	2	0	2	1	0	5
전기전자	-16	0	-3	-5	0	-24
정밀기기	-4	0	-5	-1	0	-10
철강금속	-1	-4	4	3	-3	-1
화학	1	-33	0	3	2	-27
Total	-27	-29	2	90	10	46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4. 2007년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품목의 2006년 대비 차이

산업	중간재		최종재		1차	합계
	부품	반내구재	자본재	소비재		
기계	3	0	-2	-1	0	0
기타제조업	0	0	0	8	8	16
농업	0	2	1	8	3	14
섬유가죽 등	-1	-21	0	14	2	-6
수송기기 및 부품	-1	0	0	-1	1	-1
전기전자	-7	-1	-4	-6	0	-18
정밀기기	-3	-1	-10	-2	0	-16
철강금속	0	-12	1	-5	-1	-17
화학	-2	-24	0	0	1	-25
합계	-11	-57	-14	15	14	-53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5. 산업분류 기준

대분류	HS 코드
섬유의류가죽	41~43, 50~67
화학	27~40
철강금속	72~83
기계	84 중 8407~8408, 8418, 8422, 8450, 8469, 8470~8473 제외한 나머지
전기전자	85와 8418, 8422, 8450, 8469, 8470~8473
수송기기	8407~8408, 86, 87, 88, 89
정밀기기	90~92
기타제조업	25~26, 44~49, 68~71, 93~97